

응급 및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

A Study on the survey of ethical dilemmas of fire fighters and paramedics

김지희* · 정중식**
Kim, Jee Hee · Jeong, Jung Sik

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ethical dilemmas of fire fighters in Korea. There was no research on ethical dilemmas and experience of fire fighters and paramedics(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in Korea. So I am going to survey this ethical problems through questionnaires and propose the basic data for the legal and ethical solutions.

key words : Fire fighters, paramedics, ethical dilemmas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는 소방관 윤리 및 직업 의식에 대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응급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지에 대한 지침이나 사례집이 전무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소속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응급 및 재난 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한 설문 내용을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우리나라 소방관의 응급 현장에서의 경험과 입장에 대한 질문들이며 본 설문을 통해 응급구조현장에서 소방관이 겪는 윤리 의식에 대한 경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서울시소방본부에 근무하는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 550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425명으로부터 설문서를 회수하였다. 설문기간은 2007년 11월 1일-11월 14일까지였으며, 3가지 기초영역에서 42개 소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총 550부 설문지 중 425부를 회수하여 77.3%의 설문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2.1 설문분석결과

<표 1>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성별	남자	341	83.2
	여자	69	16.8
연령	29세이하	60	14.6
	30~39세	243	59.3
	40~49세	100	24.4
	50세이상	7	1.7
학력	고졸	112	27.3

* 정회원 ·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 E-mail: kjh1962@hanmail.net

**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임상강사

	전문대졸	197	48.0
	대졸	101	24.6
결혼여부	미혼	106	25.9
	기혼	304	74.1
계급	소방사	100	24.4
	소방교	213	52.0
	소방장	97	23.7
근무연수	3년 미만	54	13.2
	3-5년 미만	33	8.0
	5-10년 미만	106	39.0
	10-20년 미만	147	35.9
	20년 이상	16	3.9
현재직무	운전-구조구급제외	17	4.1
	구급	384	93.7
	기타	9	2.2

윤리의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응급현장의 소방관은 타 직종에 비해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87, “만약 응급구조사 또는 소방관을 위한 윤리 강령이나 윤리 지침이 있다면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겠습니까?” 3.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급현장의 소방관이 가져야할 자질 및 자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동정심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능력” 4.27, “지속적인 의학지식의 습득과 연마” 4.24, “정직성” 4.20, “신중함” 4.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강령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응급 상태에 있는 환자를 편견 없이,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대한다. 그리고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철저히 지킨다”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환자에 대하여 항상 준비된 자세로 민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며 정직하게 진료한다” 4.03, “지속적인 의학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의료기술의 연마로 언제나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 결과, 윤리의식의 신뢰도는 .716, 자질 및 자세는 .941, 윤리강령의 신뢰도는 .924로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응급의료는 의학의 영역중 가장 통합적이면서도 제한적 시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은 종종 응급의료 제공 및 그 중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윤리의식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응급현장의 소방관은 타 직종에 비해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당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응급실에서 환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3.87, “만약 응급구조사 또는 소방관을 위한 윤리 강령이나 윤리 지침이 있다면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겠습니까?” 3.7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응급현장의 소방관이 가져야할 자질 및 자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동정심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4.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능력” 4.27, “지속적인 의학지식의 습득과 연마” 4.24, “정직성” 4.20, “신중함” 4.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윤리강령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모든 응급 상태에 있는 환자를 편견 없이, 그리고 인격을 가진 존

엄한 존재로 대한다. 그리고 진료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은 철저히 지킨다”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급환자에 대하여 항상 준비된 자세로 민첩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며 정직하게 진료한다” 4.03, “지속적인 의학지식의 습득과 연구, 그리고 의료기술의 연마로 언제나 최상의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지희(2007). “전국응급의료전진대회자료집”. EMS 패넬토의 : 응급의료윤리,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2. 대한불안장애학회(2004). “재난과 정신건강”. 지식공작소.